

종민이는 자기가 잡은 개구리를 조용히 던져 주었다. 수대안에 있던 개구리들의 모습이 스쳐갔다.

“우두둑 두두둑”

우산에 떨어지는 요란한 빗방울 소리 때문에 정신이 돌아왔다.

아직도 그 꼬마는 커다란 풋말을 들고 서 있었다. *

아직도 그 꼬마는
커다란 풋말을 들고
서 있었다

★ 생활의 지혜 ★

건전지·형광등은 따로 버려라

- 환경오염방지 위해 가정에서도 노력해야

따뜻한 물이 줄줄 흐르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붉은 고무장갑을 끼고 종이류만 따로 고르는 아파트 단지의 청소원. 꼭두새벽에 대문 앞에 고정된 쓰레기통의 폐기물을 삼태기와 삽으로 리어카에 힘들여 실은 후 도로변 적환장으로 옮겨 다시 차에 올려 매립장으로 운반토록 돕는 단독주택가의 환경미화원. 본래의 지표보다 33m나 높이 올라와 있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악취와 먼지, 해충의 습격을 참아가며 쓸만한 물건을 찾는 가난한 시민들.

계속 늘어만 가는 크고 멋진 고층 건물의 그림자 뒤에서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생활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도시들의 수치스러운 일면이다. 비단 한국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모두가 겪는 문제일 것이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소비생활의 조장과 산업화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이 자연의 자정(自淨) 용량을 초과, 환경을 오염시켜 생태계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한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계문명의 발달은 이들 쓰레기 중 썩지 않는 비닐 등 합성수지와 수은전지 등 중금속류의 폐기물을 배출,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각종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트랜지스터, 카세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수은건전지는 사용후 함부로 버려져 토양오염, 수질오염, 식품오염을 유발하므로 건전지의 폐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쓰레기 처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위생성이며 그것은 분리포장수거로 달성할 수 있다. 쓰레기는 분리포장수거의 과정을 통해 음식찌꺼기, 재활용이 가능한 것, 불연성의 것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위생적 보관, 능률적 수거, 분진의 최소화, 도시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선별하는 자원재생의 측면에서도 잇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사업체와 행정당국이 산업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공해 처리해야함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처리할 때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부엌 쓰레기는 젖은 것은 포장하여 마른 것과 분리한다.
- 음식찌꺼기는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 폐식용유는 종이에 싸서 버리고 기름묻은 그릇은 일단 닦은 후 설거지한다.
- 세제는 인이 들어있지 않은 무린세제로 적정량을 쓴다.
- 폐품을 활용하고 라면봉지, 빈병, 우유팩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 처리한다.
- 수은건전지, 약병, 형광등 같은 위해(危害)쓰레기는 별도로 분리처리한다.

위와 같은 방법들이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오염방지에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 주위 환경을 보존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